

# 21세기 종교 진화의 방향 : 몰락이나? 도약이나?<sup>1)</sup>

- 미션 정강길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신을 초월하고, 교리나 신학을 피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에 대한 의미 있는 통일성의 모든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감각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 아인슈타인(?)

## 1. 들어가며 : 쇠퇴의 길목에 서 있는 21세기 종교의 현실

세계적인 과학철학자로도 잘 알려진 대니얼 데닛(Daniel C. Dennett)은, 언젠가 「월스트리지(誌)」 *The Wall Street Journal*에 “종교의 미래는 왜 절망적인가(Why the Future of Religion is Bleak)”라는 글에서, 앞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종교는 쇠퇴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려한 바 있다.<sup>2)</sup>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현대의 지식사회가 이미 많은 정보들이 상호 공유되고 있는 열린 개방성의 현실에 연유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비밀스런 교리적 믿음이나 낡은 신(God) 개념 안에 더 이상 안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삶 안에 불안과 불행이 계속 이어진다면 종교는 여전히 번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의 삶이 과거에 비해 더욱 윤택해지게 된다면 결국 기존의 종교 단체도 사회적 선행을 일삼는 휴머니즘적 친교 공동체로 진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었다. 종교의 미래에 대한 데닛의 이러한 전망은 과연 옳은 것인가?

실제로 오늘날 국민경제의 복지 수준이 매우 높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국가에서는 종교가 현저히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점이 있다. 적어도 종교가 없다는 무교인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실재론 종교신앙 생활 같은 건 전혀 하지 않는 이들 역시 매우 많다고 한다. 이제는 신이 없어도 위안을 받을 데는 많은 것 같다. 게다가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을 보면,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3D프린팅(3D-Printing)에 따른 생활의 변혁 및 각종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간 경험의 다양성과 그 역량 증가의 진폭이 빠른 속도로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로 들어선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분명하게도 많은 현대인들은 이제 안락한 복지와 향상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처럼 절대자에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의 몸살의 건강과 위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 종교의 미래는 과학철학자 데닛의 말대로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데 진화의 역사를 보면 어떤 생물 종이 막다른 길에 들어서거나 매우 혹독한 환경을 접하게 될 경우, 크게 두 가지 선택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멸종하거나 새롭게 진화하거나>이다. 필자는 특히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기로에 봉착해있다고 본다. 여기서 데닛의 비관적 전망은 분명 전자에 기울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결국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몰락이나? 도약이나?”라고도 물은 것이다.

1) 이 글은 2015년 춘계 한국종교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좀 더 수정 보완한 내용의 글입니다.

2) Daniel C. Dennett, “Why the Future of Religion Is Bleak”,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29, 2015), <http://www.wsj.com/articles/why-the-future-of-religion-is-bleak-1430104785> 참조.

이 글은 이와 같은 21세기 오늘의 시점에서 종교 진화의 방향을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서 마련된 글에 지나지 않는다. 태고적부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종교의 역사는 이제 다시 한 번 새로운 상향적 변혁의 진화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퇴행하는 종교는 결국 나중에 화석화될 것이지만, 반면에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종교라면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지배하게 되면서 <종교 2.0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또한 그러한 종교진화의 양상에 걸맞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변화 역시 함께 동반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일 종교가 퇴행하는 방향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감행한다면 이 변화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낳고 있는 혁명 오히려 그 이상의 삶의 변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종교 현실은 우리 사회에 답을 주기보다는 빠른 속도의 사회 발전과 변동 양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거나 이를 소화해내기가 벅찰 정도로 심각하게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종교가 답을 주기는커녕 되려 사회발전에 지장이 될 만큼 사회적 물의를 끼치는 독소가 되는 점도 훨씬 더 많아 보인다. 퇴행하는 종교의 표징 중 하나는 종교가 삶의 가치와 목적이 되기보다는 그저 몸살의 생활양식에 있어 일부분으로 적응화된 종교, 달리 말하면 사교적 목적으로 전락된 종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sup>3)</sup> 즉, 종교생활이 이제 나의 전체 삶을 지배하는 근원적 목적이 되기보다 오히려 인간관계 유지와 활용이라는 사교 목적의 한 방편(예컨대 가족관계 유지와 사회적 인맥 맺기 거점 등)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생활이 사교행사로 전락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는 종교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히려 우리 삶에 실제로 작동되는 종교는 자본주의나 과학기술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과거에 종교가 가져다주었던 위로의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대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향유하는 가운데 더 이상 종교가 필요치 않은 시대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 글은 종교에 대한 새로운 발전적 변화의 도약을 제안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종교시대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점도 함께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신화와 철학과 과학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나는 종교가 가능한 한 새로운 혁신을 위한 모험도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종교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도 재고찰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를 테면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 그리고 종교없음을 표방하는 무교주의(물론 이들 중에는 반종교주의자나 과학지상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다)까지도 어떤 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종교 출현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 글에선 그러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면서 21세기 종교 진화의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2. 종교의 기원과 진화

과학철학자였던 화이트헤드는 진화적으로 볼 때, 종교의 기원은 선사시대 및 심지어 동물의 역사에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았었다.<sup>4)</sup> 그에 따르면 종교의 기원은 생물학적인 본능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습행(ritual, 혹은 ‘의례’ 라고도 번역됨)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로 인해 점차로 지배적인 정서(emotion)가 표출되면서 관행과 정서에 대한 강화 및 집단을 결속시키는 유대감으로도 이어지게 되었고, 그럼으

3) A. N. Whitehead, *Religion in the Making*,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26), p.23. (이하 RM)

4) RM 20.

로써 이를 정당화하는 특정한 믿음(belief) 체계를 낳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5)</sup> 종교의 태동 과정은 점차로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결부되면서 종교라는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캄(Emile Durkheim)은 “종교란 성스러운 것들 즉 구분되고 금지된 것들과 연관된 믿음들과 실행들이 결합된 체계로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리는 단일한 도덕 공동체 속으로 통합시킨다”고 보았었다.<sup>6)</sup> 즉, 뒤르캄에 따르면 일찍이 종교가 표방한 우주에 대한 개념들은 오늘날에 보면 상당히 조잡한 관념들과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교 기제 자체는 집단의 결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해주었고 이것이 사회적 생존에 있어선 매우 강력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거의 한 세기 전에 나온 뒤르캄의 분석이나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주장들은 오늘날에 종교를 진화과정에서의 <적응>adaptation으로 받아들이는 진화생물학자 데이비드 슬론 윌슨(David Sloan Wilson)의 종교에 대한 진화론적 연구와 그리고 니콜라스 웨이드(Nicholas Wade)가 종교의 기원과 역사를 진화론적으로 분석한 맥락에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고 여겨진다.<sup>7)</sup>

물론 종교에 관한 진화생물학적 이론들에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크게는 1) 적응으로서의 종교와 2) 비적응으로서의 종교라는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sup>8)</sup> 여기서 필자는 이 같은 윌슨과 웨이드의 입장을 따라 전자에 속하며 이들의 <다수준 선택설>multi-level selection theory의 입장에 서 있음을 말씀드린다.<sup>9)</sup> 즉, 종교는 진화에 있어 <우연한 부산물>accidental by-product이 아니며 오히려 직면하는 여러 환경에 있어서도 그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만큼 분명한 이익이 되었던 적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오늘날의 인간은 종교적 본성이 각인된 유전자만큼이나 본능처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웨이드에 따르면 종교적 행동의 출현은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집단적인 춤이나 울부짖는 소리, 몸짓 등 정보 전달을 위한 종교적 행동의 원형(proto-religious behavior) 같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sup>10)</sup> 이것이 점차로 집단의 결속감과 유대감의 증진에 기여하면서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종교의 태동과 형성은 마침내 인간 문화의 핵심으로 작동해왔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화론적인 종교 분석을 제시했던 웨이드에 따르면, 이제는 이러한 종교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현재

5) RM 18-27.

6) Emile Durkheim (author), Karen E. Field (translated),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The Free Press, 1995[1912]), p.44.

7) David Sloan Wilson, *Darwin's Cathedral: Evolution, Religion, and the Nature of Society*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 니콜라스 웨이드 지음, 이용주 옮김, 『종교유전자』 (서울: 아카넷, 2015) [원서: The Faith Instinct 2009년]. 참조(이하 ‘웨이드’로 표기). 반면에 종교를 <비적응적 부산물>로 이해하는 저작으로는 파스칼 보이어(Pascal Boyer)의 *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2001)가 있다. 한편 데닛의 경우는 종교를 진화론적 시각에서 도킨스(R. Dawkins)가 말한 ‘밈’meme과 그 자신의 ‘intentional stance’(국내에선 ‘지향적 자세’로 번역됨)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선 *Breaking The Spell: Religion as a Natural Phenomenon* (New York: Penguin Books, 2006) 참조.

8) David Sloan Wilson, 앞의 책, 표 1-1 참조.

9) 이에 대해선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이는 애초 이 글의 목적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여기선 필자의 입장만 밝혔음을 말씀드린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 생물학 진영에는 유전자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친족선택설(kin-selection)과 그리고 다수준선택이론에 해당하는 집단선택설(group-selection) 간의 논란이 있다. 이때 집단선택설의 경우 진화생물학자들 중에선 이미 한물 간 이론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때 친족선택설을 강하게 지지했던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은 오히려 집단선택설로 다시 새롭게 전향한 바 있어 지금도 학계에선 논란이 분분하다.

10) 화이트헤드는 종교와 연극의 그 발생적 기원이 동일한 것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RM 21.

11) 웨이드 142-146.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0.7퍼센트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350년 동안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에는 세속 국가의 제도적 확립 및 근대 지식에 의해 종교적 전제의 일부가 무너져버린 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sup>12)</sup> 실제로도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 교육 받은 사회적 계층에서는 종교적 신앙이 쇠퇴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웨이드에 따르면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적 지식의 핵심적 요소는 신학(theology)이 아니라 도덕과 군사 및 생식 행동에 관한 실제적인 규칙들이라는 것이다.<sup>13)</sup> 그런데 이제는 과거와 달리 사회지도자들도 그러한 종교 규칙들 속엔 사회 질서의 존속을 확보할만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집단적 지혜가 담겨 있는 것으로는 더 이상 생각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대 지식 이후로 많은 교육의 내용들은 과거 종교 신앙의 믿음과는 충돌하고 있으며, 더 이상 사회적 소통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도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제는 오히려 사회적 적응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종교가 새롭게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종교의 쇠퇴 현상은 자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 3. 현대사회에서 몰락하는 종교의 특징,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쇠퇴하는 종교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그 <불통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불통성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인류가 축적해놓은 온갖 합리적 지성의 성과들과 설명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오히려 신화적인 초자연주의를 여전히 역사적 사실로서 수용하고 있는 근본주의(고정주의) 종교 신앙이 유유히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언젠가 필자는 종교가 퇴행을 보여주는 두 가지 징후들로서 첫째로는, 종교가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우리네 삶의 온갖 부조리들에 대해 더 이상 온전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저 불가해한 절대적 영역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에게 해당 종교의 신념을 강요하거나 이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둘째로는 해당 종교가 그때까지 저질러 왔었던 지속적인 오류와 비극 앞에서조차 여전히 온전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퇴락하는 종교>의 주요한 특성으로서 꼽은 바 있다.<sup>14)</sup>

그렇다면 종교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할까? 필자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인간 생물종의 종교 역사에는 크게 3가지 국면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신화>와 <철학>과 <과학>과의 조우에 따른 국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이것은 다음과 같이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① 신화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원시적 종교
- ② 신화 뿐만 아니라 철학에 의해서도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일반화 종교
- ③ 신화와 철학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현대화 종교

이렇게 3가지 국면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본다면, 흥미롭게도 신화적 상상력이

12) 웨이드 497-498.

13) 웨이드 499.

14) 정강길, “기존 기독교의 붕괴와 새로운 기독교의 도래”, 월간 『기독교사상』 (2007년 8월 창간50주년 특집호) 참조.

함께 자리해있더라도 좀 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소통을 기울이는 종교의 경우는 오히려 전망이 그리 어둡지 않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앞으로의 종교 진화의 방향은 신화-철학-과학과의 상호 소통적 방향으로의 진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인 분석과 해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 4. 뮈토스에서 로고스로 다시 사이언스의 시대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과연 신화가 지배적이었던 뮈토스의 시대에서 철학적 사유와 논리에 따르는 로고스의 시대로 정녕 넘어온 것인가? 필자는 이 점에 있어선 종종 의문을 갖는다. 이제는 로고스 중심의 철학적 사유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등장한 과학(사이언스)의 발흥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에 이르렀지만, 어떤 면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것은 <신화에 대한 숭배적 믿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21세기에도 신화의 시대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sup>15)</sup>

물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적 신앙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추세일 순 있어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신화들은 세계의 여러 종교들 안에서도 혹은 민간 마을 신앙에서도 분명하게 발견되고 있고 또한 그것은 우리 삶에 주도적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신화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철저히 분석했던 종교학자인 브루스 링컨(Bruce Lincoln)에 따르면, 신화란 일종의 “서사 형식의 이데올로기” 로도 작동된다는 점 역시 밝힌 바도 있다.<sup>16)</sup> 즉, 성스럽고 낭만적인 이야기의 배후에도 알고 보면 정치적 권력과 온갖 이데올로기적 투쟁들이 그 안에 함께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뮈토스가 로고스에 굴복당한 것이 마치 비이성에 대한 이성의 승리로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시각도 분명 극복되어야 할 지점이다. 또한 이것은 그만큼 신화라는 것이 우리 안의 무의식에 그리고 몸삶의 전인적인 지평에 불박이처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실히 확인되는 대목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가 삶에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되어선 안 될 부분이다. 다만 여기서 설명력 확보의 관점에서 좀 더 비교적으로 볼 경우에, 주지하시피 그리스 철학의 등장은 삶에 있어 설명의 주된 핵심을 신들과 영웅들의 활동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에 대한 이성적 상상력과 탐구에 주로 의존한다. 그렇다고 철학의 역사가 온전히 신화와 단절된 채로 신화를 끌어내기만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서사적 형식보다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형식을 채택하면서 전개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권력을 잡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한 것처럼 철학은 종교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채택되는 점도 매우 컸었다. 이른바 <정당화>justification의 기능을 한 것이다. 이성의 지식 역시 여전히 권력적이다.

그럼에도 신화에서 철학으로 그리고 근대 이후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초자연주의에서 자연주의로의 관점 이동>이 있었고 그럼으로써 <소통 가능한 설명력의 확보>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온갖 합리적 분석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불가지의 것들도 많다. 우리는 이를 <신비>神祕의 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신비는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철학의 영역에도 있고 또한 자연의 생명들을 측정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의 영역에도 여지없이 드리워져 있다. 심지어 종교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무신론적 과학자인 도킨스(R. Dawkins)도 자신은 자연에서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신비를 체험한다고도 얘기한다.<sup>17)</sup>

15) 송병구, “뮈토스와 로고스: 현대의 신화 읽기”,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종교와 문화』 9호 (2003), p.168.

16) Bruce Lincoln, *Theorizing Myth : Narrative, Ideology, and Scholarship* (Chicago &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참조.

그리고 <합리주의의 모험>에서 볼 때, 철학과 과학의 변별점의 경계에는 측정성의 여부에 있다고 여겨진다. 철학은 세계와 존재에 대해 궁극적 지평에까지 밀고나가는 사유를 진행할 수 있는 <상상적 일반화>imaginative generalization가 허락되지만, 과학은 그러한 상상적 일반화의 작업에도 일정 부분 힘을 빌리고 있긴 하나 어디까지나 논의의 핵심은 측정 가능한 영역의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과학에서는 가설에서 이론으로 진일보되는 승격이 있을 수 있지만, 철학의 경우는 그 어떤 이론도 가설적 범주를 넘어설 수 없는, 시험적 정식화로서만 자리할 뿐이다. 이는 철학의 역사를 보면 잘 드러난다. 사상의 역사는 언제나 활기찬 개시와 무기력한 종결의 비극적인 혼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sup>17)</sup>

동시에 과학의 경우에도 그 밑변에 심층적 전제에선 이론 의존성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이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굳이 과학철학에서 <관찰의 이론 적재성> 개념이나 토마스 쿤(Thomas S. Kuhn)의 패러다임론을 언급하진 않더라도 과학조차 어디까지나 역사 속에서 그것도 사회적 권력의 작동과 함께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너무나 분명하다.

흔히 과학의 이론을 객관적이라고도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측정(관측)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변동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과학지상주의적 태도 역시 위험할 수 있는데, 필자는 과학만을 우선시하는 과학주의적 자세는 또 하나의 세속화된 종교의 양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함께 근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종교 신앙일 것이다. 실제로 <자본과 과학기술의 힘>은 종교의 구원을 대체할 만큼 막강하다! 신경공학자인 세바스찬 송(Sebastian Seong)에 따르면, 냉동보존 기술이 어쩌면 영생을 보장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과거의 파스칼의 내기보다도 훨씬 더 신뢰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그럼에도 이 글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신화와 철학과 과학의 시대와 조우하면서도 여전히 <합리적 신비주의>rationalistic mysticism는 언제나 유유히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5. <과정으로서의 합리주의>와 합리적 신비주의

종교 역시 <합리주의>rationalism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러한 표현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합리주의>란 기존의 서구 근대 합리주의 혹은 독단적 완결로서의 합리주의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합리주의>를 의미하는데, 이는 화이트헤드가 추구하고자 했던 합리주의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합리주의란 사상을 명석하게 하려는 하나의 모험이며, 끊임없이 전진할 뿐 결코 멈추는 법이 없는 하나의 모험이다. 그러나 이 모험은 부분적인 성공도 중요시하는 모험이다.”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9쪽, 이하 PR로 표기). 오히려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 근대 철학이 표방했던 합리주의조차 오류가 있는 독단적 합리주의였다는 점에서 <합리주의>라고 볼 수 있다(A. N. Whitehead, *Science and Modern World*, 이하 SMW 표기). 합리주의는 결코 완결된 채로 머물러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신비주의>mysticism와도 항상 맞닿아 있는 그러한 합리주의다. 그런 점에서 필자가 추구하는 합리주의는 신비주의와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그러한 합리주의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필자는 <합리적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17) 리처드 도킨스, 『현실, 그 가슴 뛰는 마법』 (서울: 김영사, 2012) 참조.

18) A. N. Whitehead, *Modes of Thought*, p.54.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적어도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합리주의>rationalism의 성과들과도 충돌하는 <초자연주의>supernaturalism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책임 있게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초자연주의>란, 신이든 인간이든 그 어떤 존재나 특별한 사건이든 간에 자연과 세계에 대한 인과적 법칙들을 간헐적으로라도 깨트릴 수 있다고 믿는 사조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의 기원은 철학과 과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고대인들의 신화적 사유로부터 비롯된 것일 뿐이며, 오늘날에는 판타지를 즐기는 예술이나 문화적 축제 혹은 유희적인 놀이에서나 유용할 뿐, 이를 지성적인 신념으로 지니기에는 매우 부적당한 것이다. 더구나 불통스런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초자연주의를 역사적 사실로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들도 만만찮다. 초자연주의라는 사조는 신화의 시대라는 문맥을 통해 독해될 수 있는 그 <의미 체계>로서 수용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현대에서는 더 이상 초자연주의를 역사적 사실로서 믿는 종교 신앙은 현대사회에선 소통의 걸림돌이 될뿐더러 폐쇄적이고 자족적 모임에서나 가능할 수 있을 뿐이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중세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실제로 현대에 이르러 과학과 종교가 가장 충돌하는 구체적 지점 역시 종교 안의 초자연주의 요소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자연주의를 문자 그대로 사실로서 수용하는 종교들은 더 이상 시대와 호흡할 수 없는 낡은 종교 혹은 퇴락한 종교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현대의 과학은 분명 엄격한 증거 채택에 기반된 사실 유무에 관여하는 분야다. 초자연주의라는 사조는 필연적으로 과학의 이러한 성격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과학만이 전부인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는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초자연주의>와 <신비주의>mysticism는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추구하는 <합리주의>rationalism는 신비주의와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해 인간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차원의 <신비주의>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미지의 합리주의>인 것이며, 그나마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합리주의>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노출된 신비주의>인 것이다.<sup>19)</sup> 그리고 그런 점에서 신비는 늘 해명을 기다린다. 그것은 인간에 내재한 근원적 호기심과 설명 욕구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신비를 신비로만 남겨두려는 것도 신비에 대한 반역이자, 인간 지성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언제나 합리적 해명을 열망한다. 다만 인간의 합리적 분석 이후에도 이를 빠져나가는 미완의 모호성 또한 항상 남아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지상주의적 태도 역시 온당치 못하다. 사실 신비는 도처에 자리해있다.

## 6. 전후 혼동의 오류를 통해 구분해보는 ①과학이전의 종교와 ③과학너머의 종교

철학자인 켄 윌버(Ken Wilber)가 고안한 개념들 중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전초 오류>pre-trans fallacy (줄여서 PTF로, 때론 pre-post fallacy라고도 씀)라는 개념이 있다.<sup>20)</sup> 이는 ①이성이전의 단계→②이성의 단계→③이성너머의 단계에 있어 ①과 ③이 이성의 단계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인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발달과 성장의 과정에서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이 있다고 하자.

- ① 아이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
- ② 어른은 선악을 구분한다.
- ③ 성인은 선악의 구분을 초월한다.

19) 미션 정강길, 『기독교 대전환』 (서울: 대장간, 2012) 참조

20) 켄 윌버 지음, 김철수 옮김, 『아이 두 아이』 (서울: 대원출판, 2004), pp.331-389.

그러나 이때 ③단계의 성인은 적어도 ②의 어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①단계의 아이와는 사실상 다른 새로운 단계에 속한다. 따라서 ②의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①의 상태와 ③의 상태를 같은 단계의 상태로 간주해선 곤란하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것을 놓고 <전초 오류>라고 말하는 것이다(사실 이 개념에 대한 적용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생략하는 바다). 나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전후 혼동의 오류>라고 부른다.

나는 이 <전후 혼동의 오류>라는 맥락에서 신화가 작동되었던 시대의 종교와 그리고 철학이 등장한 시대의 종교 그리고 과학이 등장한 이후의 종교는 엄밀히 말해 다른 것이며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이 개념을 과학의 등장과 관련해 적용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과학 이전 - 초자연주의와 신비주의가 미분화된 혼재 상태
- ② 과학 시대 - 근대 자연주의 과학의 등장으로 초자연주의 믿음과는 충돌함
- ③ 과학 이후 - 자연주의적 과학과 신비주의 요소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 가능함

앞서 <초자연주의>supernaturalism와 <신비주의>mysticism에 대한 구별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전후 혼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며, 이때 초자연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한 구분은 ‘② 과학 시대’를 거치면서 분기되어진다고 본다. 즉, 초자연주의를 사실의 영역에서의 수용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삶의 의미와 당시의 그 시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여기엔 권력 획득의 방식까지 포함)으로서는 수용 가능할 수 있다. 알다시피 고대인들의 신화나 전설 및 민담 등 이러한 이야기들은 초자연주의적인 세계 이해의 요소들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낭만적 사조에서는 이를 흥미롭게 채택하기도 한다.

반면에 모든 것을 과학에만 한정되어서도 곤란할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은 여전히 자연에 대한 사실(fact) 여부들을 측정적으로 밝히고자 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가치나 의미(meaning)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아직까지도 현대 자연과학에서는 <작용인>(作用因, efficient cause)만 인정되고 <목적인>(目的因, final cause)은 대체로 거세되어 있다. 근대 과학이전의 중세가 <목적인>에 치우쳐 있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근대 이후의 과학은 <작용인>만 원인으로 인정하는, 정반대인 꼴이다. 하지만 과정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밝혀낸 것처럼, “건전한 형이상학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는, 목적인과 작용인을 이들 상호간의 적절한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이고도 광범위한 일반성을 탐구하는 철학의 적용도 궁극적인 정당화를 위해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과학자들도 과학지상주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철학, 종교, 윤리학 같은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상호 협력 작업 역시 분명하게 필요하다. 복잡계 생물학자인 스튜어트 카우프만(Stuart A. Kauffman)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는 메마른 사실의 집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우리의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시공의 변용, 원자의 춤, 세포의 작용만이 아닌 창발된 의식으로부터 구현되는 의미들의 생성과 거대한 의미망의 형성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움들이 지속적으로 더해지면서 발현된 사태에 속한다. 진화하는 자연은 한편에선 동일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동일하지 않은 새로움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낸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항상 현실을 넘어서고 있는 지극히 신비로운 그 무엇이다. 이것은 항상 언어를 넘어서고 있는 실재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 7. 21세기 종교는 합리적 신비를 추구하는 소통 방식과 발달 성장의 신앙 모형을 개발해야

종교 역시 합리주의의 모험과 마찬가지로 형성 과정에 있을 뿐이지 결코 완결에 이를 수 없다. 그 어떤 종교가 완벽하다고 자인할 수 있을까. 오히려 완벽함이란 죽은 것이기도 하다. 완벽에서는 오히려 발전적인 통찰의 느낌은 사라져버린다. 우리 앞에는 상대적 의미로서의 진보만이 있을뿐이다. 이 상대적 의미로서의 진보란 적어도 그때까지의 오류와 비극에 대한 성찰적 반성이 수행됨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진보를 의미한다.

필자가 보기에 종교가 과학 진영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보는 지점은 바로 <담론 소통의 방식>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학의 담론 소통 방식을 그대로 끌어와서 모방하자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만일 종교가 진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할 경우, 그렇다면 그러한 종교의 핵심 교리나 가르침 역시 진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종교 진화에 있어 <근본주의(고정주의)>와의 온전한 결별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담론 소통 방식을 취한 21세기 새로운 종교 모델에서는 <완결된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장려하는 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합리적 의심을 장려한다는 건, 그때까지의 합리주의의 성과를 모두 끌어안으면서 이를 통한 합리적 분석의 모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종교가 <불통의 종교>가 아니라 <소통의 종교>를 지향한다면 그 종교는 자신들의 완결된 가르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존재의 발달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그 근본적 목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신론적이든 유신론적이든 상관없이) 오히려 존재 전체의 더 나은 발달 성장을 원할 뿐이다.

어떤 면에서 데카르트적인 방법적 회의는 꼭 철학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보질 않는다. 역사적으로 합리적 의심과 회의가 오히려 존재의 발달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란 부지기수로 매우 많다. 따라서 앞으로의 종교 신앙은 합리적 의심에 대한 옹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sup>21)</sup>

생각건대 종교는 존재의 상향적 발달을 원한다는 점에서 진실로 종교가 요구하는 바는 그 어떤 완결된 형식의 체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상태에 대한 혁신을 통한 더 나은 발달 성장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종교는 기존의 발달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발달 성장의 요소들마저 이를 포함하면서도 넘어서는 포괄적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다.

생물학적인 발달과 함께 일반화된 사회심리학적 의미의 정신적 성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종교의 목적은 보다 궁극적인 지평을 끊임없이 지향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신(또는 신적인 것들)에 대한 몸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트랜스퍼스널 심리학>transpersonal-psychology에서 추구하는 바와도 유사한 통합적 의미의 전인적인 발달 성장에도 가깝다. 오늘날에 많은 학자들은 이를 ‘영성(靈性)’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영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몸성의 상향적 발달 성장>을 지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은 <몸삶의 신성화>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종교는 완결된 믿음체계를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발달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점이 있어왔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많은 종교의 경우 뿌리 깊은 절대적인 자기 확신성을 지녀왔고, 종교인일수록 그러한 절대적 확실성에 자기 목숨마저 헌신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럼으로써 정작 종교들 간에도 그 절대적 확실성의 내

21) 피터 버거·안톤 지더벨트 지음, 함규진 옮김, 『의심에 대한 옹호- 믿음의 폭력성을 치유하기 위한 '의심의 계보학』 (서울: 산책자, 2010), 참조.

용들이 서로 달라서 충돌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종교 신자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야말로 절대 가르침이자 진리라고 표방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오류가능성이 없는 종교>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자기가 속한 종교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꼭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이다. 종교 가르침의 전수 과정에서도 굴절과 왜곡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 8. <보존>과 <혁신>이라는 두 바퀴의 균형으로 갈 수 있어야

어떤 의미에서 종교의 핵심 가치는 기존의 것에 대한 <숭배>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기존의 것에 대한 <혁신>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종교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이 함께 배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은 주로 숭배적 성격의 종교에 치우쳐 왔던 점이 컸었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종교의 역사를 보면 후자의 성격은 놀랍게도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모든 고등한 종교들의 창시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후자의 성격이다. 이들은 오히려 기존의 절대적 확실성을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창조적 혁신의 사건이었다. 세계 안의 고등 종교는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한 <혁신의 원(原)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해당 종교에 있어 언제나 혁신의 원형에 해당한다. 붓다는 당대의 인도 힌두이즘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것이었고, 예수사건 역시 당대의 유대이즘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종교가 지닌 혁신의 가치에서 보면 기존의 절대적 확실성을 신봉하거나 숭배와는 달리 새로운 창조적 생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축의 시대>를 형성했던 통찰들을 비롯해 모든 위대한 종교적 통찰에는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적인 성격도 함께 배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종교의 본질을 우리는 달리 볼 필요도 있다고 여겨진다. 즉, 종교의 핵심 가치는 그 어떤 진리를 확신하여 이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보존 유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최선으로 추구하되 진리라고 여겨지는 기존의 것을 이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수정·극복하려는 혁신의 과정에도 오히려 종교의 진정한 참맛과 의의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적 진리에 대한 확신과 보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진리라고 여겨져 왔던 기존의 것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통찰적인 성찰과 반성이라는 그 극복 과정에도 종교로서의 핵심 가치가 놓여 있다고 본다. 알고 보면 종교는 기존의 전통에 대한 숭배와 동시에 끊임없는 개혁의 역사로도 점철되어 있다. 이때 <전통의 보존>과 <혁신적 개혁>이라는 두 바퀴에 있어 특히 종교에선 후자의 중요성을 곧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 문화화 되어 있기에 그것은 뿌리 깊게 신체화되어 있기도 하다. 진정한 숭배의 절정은 <같이 되기>를 통해서다.

이제는 체화된 인지로서의 새로운 몸삶의 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즉, 실질적인 종교의 혁신은 곧 몸삶의 혁신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이 세계 안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면서도 여전히 신비로 드리워져 있는 미지의 합리주의의 영역에 있는 것들과의 직접적 체화로서의 일치로부터 일어난다.

## 9. 나오며 - 정리와 과제

몰락하는 종교가 아닌 도약하는 종교가 되려면 결국 합리적 소통이라는 방향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종교가 자족적인 폐쇄성과 한정된 특수성에 그칠 게 아니라면 결국 종교 진영은 그 자신의 담론 소통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근본주의(고정주의)에 대한 분명한 책임적 자세와 분명한 절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대니얼 데닛이 전망한 종교의 몰락은 결국 필자가 생각하기엔 불통스런 근본주의 종교에 한정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초자연주의를 역사적 사실로서 정당화하는 종교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오히려 합리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종교의 미래는 결코 어두울 수 없고 도리어 인류사에 빛을 줄 수 있을 만큼 더욱 밝은 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합리적 신비주의는 그 옛날 신화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철학과 과학이라는 합리주의라는 세례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잘 견뎌내고 있는 매우 유용한 신화로서도 당당히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신비에 대한 추구다.

그리고 종교의 상향적 진화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종교학적인 시각에 있어서도 근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자본교와 무종교(과학주의, 인본주의 등)도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시각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종교없음을 표방하는 무종교인들은 종교적 범주를 아예 벗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인간은 분명 종교를 본성처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호모 텔리기우스>로서의 종교적 존재가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자본교와 무종교(과학주의, 인본주의 등) 이러한 그룹들에 대해선 이를 종교학적 시각으로 확보할 만한 논의가 거의 드물지 않나 생각한다. 적어도 전통적 의미의 종교 이해나 개념으로는 이것이 통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 있기에 하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이미 자본주의를 종교로 분석한 바 있던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다음과 같은 통찰은 여전히 상기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본주의는 세속화된 유형의 종교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하나의 종교를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자본은 이전에 종교가 답변을 주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걱정과 고통 그리고 불안을 잠재우는데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sup>22)</sup>

따라서 자본주의는 과거 종교가 수행했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이제 자본교 신자로서 충분한 위안을 얻고 있는 셈이다. 재독학자 한병철은 최근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위해서 일한다. 자본에서 생성되는 자본의 고유한 욕구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구라고 착각한다. 자본은 새로운 초월성, 새로운 예속의 형식이다. 우리는 삶이 어떤 외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삶 자체로 머물러 있는 차원, 즉 삶의 내재성에서 다시 추방당한다.”<sup>23)</sup>

22) 발터 벤야민 지음,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 폭력비판을 위하여 · 초현실주의 외』 (서울: 길, 2008), p.119.

23) 한병철 지음, 김태환 옮김, 『심리정치』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17-18.

사실 이러한 필자의 제안에 대한 맥락들은 종교에 대한 개념 정의 역시 다시금 필요로 할 수 있다. 적어도 근대 이후로 출현한 자본주의 변영과 무종교주의(과학주의, 인본주의 등)의 부흥 역시 종교 현상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제안해보는 연유에도 아직까지도 종교학자들 간에 종교에 대한 개념 정의로서 선명하게 일치될 만한 만족의 지점은 거의 찾기 힘든 현실에도 있기에 그렇다면 위와 요소도 포함시켜 새롭게 검토하고 시도해보는 점도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종교라고 하면서 불교와 유교는 과연 종교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분분하다. 불교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유교는 과거에 종교였지만 종교로 보기 힘들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 세계 종교의 현황을 조사한 미국의 종교 관련 통계사이트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도 세계 10대 종교의 목록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sup>24)</sup> 아마도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날엔 모두가 흡족해할만한 종교에 대한 개념 정의를 찾기란 참으로 힘들다는 점일 게다.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서양의 ‘religion’ 과 동양의 ‘宗教(종교)’ 가 갖는 뜻을 통해 이를 간략하게만 언급해보고자 한다. 영어의 ‘religion’ 과 한문의 ‘宗教(종교)’ 는 분명 차이가 있고 이미 두 낱말의 어원과 연관된 의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다.<sup>25)</sup> 그래서 혹자는 불교는 동양의 ‘宗教(종교)’ 뜻에 부합하지만 서양의 ‘religion’ 뜻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점도 함께 마련하면서 논의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宗教(종교)’ 라는 용어는 ‘옳음 가르침’ 으로 언급되며, 서양의 ‘religion’ 은 ‘신 혹은 신적인 것과의 결합(결속)’ 을 의미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sup>26)</sup>

따라서 필자가 정의하는, 종교란 결국 ‘인간 삶의 목적을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것들(things)과의 결속 노력들’ 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서 ‘것들’ 이라고는 했는데 (일단 여기에는 그것이 미신적이든 주술적이든 상관없이) 신화, 신, 교리, 철학 등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즉, 그 어떤 정보로서의 가르침이나 특정 존재 혹은 사물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삶의 목적을 주도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습행(의례)와 지배적 정서 및 특정 신념으로 표출되고 결국엔 이를 <정당화>justification하는 작업 역시 요구되어진다고 본다.

필자가 말하는 이러한 종교 개념 정의가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도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이 오히려 물질적인 경제적 가치에 거의 매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 종교는 오히려 <경제물질주의>라고 생각된다. 심지어 과학지상주의자들의 경우도 과학을 종교화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양상의 현대적 종교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오늘날 다수의 현대인들은 <자본교/자본주의>와 <과학교/과학주의>도 많은 위안을 받으며 살고 있다. 자본이 구원이 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역시 실제적 구원일 수 있다는 점을 표방하기도 한다. 과학에 대한 신념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이성을 위한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만일 종교가 인간의 본능처럼 작동되는 본성이라면 그 역시 새로운 유형의 종교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며 여기서 글을 맺고자 한다. 분명한 건, 바야흐로 <종교 2.0> 시대를 위해서라도 보다 갱신된 새로운 관점의 시각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종교가 여전히 자연과 결코 이분화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되는 한, 종교 유무를 말하기보다는 결국 <어떤 종교인가>를 물어야만 할 것으로 본다.

24) [http://www.adherents.com/Religions\\_By\\_Adherents.html](http://www.adherents.com/Religions_By_Adherents.html) 참조.

25) 황보갑, 『비교 종교학』 (서울: 기독교문화사, 2000), p.23.

26) 이는 락탄티우스(Lactantius, 약 240 - 320년경)의 렐리가레(Religare, 재결합하다, 함께 묶다)에 근거를 둔 것인데, 물론 religion의 어원에 대해선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에르누(A. Ernout)와 메일레(A. Meillet)에 따르면 어원론적으로 락탄티우스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언급된다. 일단은 여기서 이 정의를 따른다.